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公演

경기소리보존회, 11월3일 오후5시 포천반월아트홀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는 11월3일 오후5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 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포천시의회,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포천문화원, 포천예총, 포천신문사가 후원해 마련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무대는 지난해에 발표한 영평팔경가를 소리의 형태로 각색하여 연출한 작품이다.

영평팔경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경기민요소리극 영평팔경가는 장두이 연출가에 의해서 제작·연출된다.

장두이 연출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극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으로 모두가 열심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빼어난 경치인 영평팔경가를 소리극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한 박영실(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은 "지역에서 어렵게 제작하는 작품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의 작곡은 이병욱, 안무 김정민, 소리지도 박영실, 편곡 및 음악 김성운, 무대미술 이상수, 조명 김중호씨들이 참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1월3일 공연을 위해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회원들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 기고 포천시 문화관광해설사회 창립 및 활동

구슬 꿰는 실이 되어

-박영자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계화 또는 글로벌 시대라 하여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의 경계는 물론 모든 삶이 각국의 특성이나 개성 없이 획일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가는 종내에는 거대한 나라에 흡수되기 마련이다. 특히 이즈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우리 역사를 넘보는 무서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필히 역사를 바로 알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부여를 새롭게 하여 문화콘텐츠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역할은 지대하리라 본다.

우리 포천에도 발맞추어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포천시회가 발족했다. 포천에서는 그동안 제작년까지 유일하게 분회 회장인 이종훈 회장이 약 3년 이상을 의롭게 활동을 하였으며, 변진수, 박영숙, 한선희 그리고 분회 총무인 필자 박영자 등 4사람이 지난 2005년4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문화유산(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을 거쳐 활

동을 하다 비로소 올 9월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포천시회가 탄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외부관광객 대상으로 150여회의 해설과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1회에 7~8곳 등 30여회의 해설, 그리고 각 해설사들이 도서관, 교회, 각 학교 등에 문화유산 강의하였음을 볼 때 앞으로의 수요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더욱 증가하리라 본다.

타 지역에서는 소설 속의 인물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붓을 조성하는데, 우리 포천은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계실에도 희소성이 희박해져서인지 지역민 스스로 무관심 내지는 홀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흠 속에 묻혀 있는 옥구슬을 실에 꿰어 세상 밖으로 내놓아야 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길이라 본다.

물론 각 관계기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해설사 스스로가 아름다운 구슬을 꿰는 실이 되어 이 지역의 문화유산 알람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연극’

제13회 포천어린이연극경연대회 11월1일 開催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오는 11월 1일 오후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 13회 포천 어린이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연극협회 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신문, 포천시문화예술포럼사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어린이들의 꿈을 무대 위에 실현하는 맑은 공연으로 펼쳐진다.

어린이들의 창의력 고취와 정서함양, 그리고 협동심과 지도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연예술의 실제적인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연극을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여 진정한 타인의 인생을 느끼고 장래의 희망을 가슴에 품어 미래의 이끌어 가는 마음의 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 시·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에서만 이루어지는 연극축제다.

이번 무대체험에서 우수한 공연을 펼친 팀은 포천연극제에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참가극의 내용은 어린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극, 전래동화, 전설 등을 작품화한 것, 교육현장에서 체험사례, 기타 어린이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연극 등이다.

시상은 단체상으로 포천시장상 1개교, 포천교육장상 1개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상 1개교, 개인상으로는 경기도교육위원장상 3명(지도교사), 연기상 3명으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는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윤우영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과교수, 이인철 텔런트 겸 영화배우 등 연극계 저명한 인사가 초대된다. 이번 공연은 예술적 완성도와 어린이들의 표현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미래의 연극영화, 공연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도움이 되는 극, 전래동화, 전설 등을 작품화한 것, 교육현장에서 체험사례, 기타 어린이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연극 등이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회 관계자는 "어린이 연극이 필요한 환경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린이 연극의 중요성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지도교사들의 여론을 반영해 앞으로 어린이 연극제로의 명칭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國의 선비정신 · 46

사사로운 원한은 묻지 않는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태조6년인 1397년, 박은은 사헌시사(司憲侍史)로 있었다. 그때 유량(柳亮)이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부임하였는데, 어떤 일로 박은을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박은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유량에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 나이가 되면 당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텐데 어찌 나를 꺾어버리시겠소?"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듬해 남쪽 부윤 유량이 이를 찾아 싸워 크게 무찔렀다. 형세가 불리해진 왜구들이 항복을 청해오자 유량은 그들의 항복을 거절함으로써 받아들인 뒤 일거에 섬멸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사전에 그 계획이 누설됨으로써 왜구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

그후 유량은 왜인들과 결탁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헌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사헌부에서는 그가 예전에 박은을 꺾었다고 하였다. 박은은 이를 알고 박은을 불러들였다. 원한이 있는 박은에게 그를 심문케 하여 사실을 낱말이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윽고 박은이 나타나자 유량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박은이 반드시 지난날의 원한을 품고 자신을 흑독하게 대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헌부 관리가 죄를 기록한 문서를 박은에게 갖다주자 박은은 일일이 사건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검토해도 유량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박은은 붓을 집어던지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짓은 차마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박은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 덕에 유량은 죽음을 면하고 합산(合山)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나누로 옮긴 후 풀려났다.

박은은 아무리 지위가 높았어도 녹봉을 모두 가난한 친척들에게 나누어주었으므로 늘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태종이 물대밭에서 나와 그를 찾아왔다.

태종이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박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태종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박은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 채 맨발로 뛰쳐나왔다. 그를 보자 태종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미 임금의 행차를 알렸는데도 이렇게 늦은 까닭이 무엇인가?"

박은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금방 조로 지은 밥을 먹다가 재채기가 나는 바람에 졸살이 목에 걸려 제때 나오지 못하였습니까."

태종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재상도 조로 지은 밥을 먹는가?"

태종이 사람을 시켜 그의 방안에 들어가 보게 하니 과연 밥상 위에 누런 조밥이 놓여 있었다. 태종이 탄식하고 박은에게 땅 몇 이랑을 하사하겠다고 한다.

박은

1370년(고려 공민왕19)~1422년(세종4).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양지(仰之), 호는 조은(釣隱)이다. 고려말의 학자인 이곡(李穀)의 외손이며, 어효첨(魚孝瞻)의 장인이기도 하다.

1385년(우왕11) 문과에 2위로 급제하여 고려조에 벼슬이 개성부수윤(開城府少尹)에 이르렀다. 조선조에 들어 이방원의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원의 집권을 위하여 지방군사를 동원하였다. 1400년(정종2)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 때도 왕위를 도와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태종때는 형조·호조·병조·이조의 4조 전서(典書)를 두루 역임하였다.

그후 요직을 거쳐 1414년 이조판서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47세의 나이로 우의정이 되었으며 곧 좌의정에 올랐다. 1421년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 답사

포천문화원 임·회원 관외유적답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중부 문화유적의 내용과 분포,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25일 문화원 임·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 문화유적지인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을 중심으로 관외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현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능강산 대문화공원,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자양영당, 박달재 역사탐방을 실시하여 제천문화에 대한 내용과 분포, 역사의 재조명을 통한 임·회원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올바른 가치관 확립, 건전한 사회분위기



포천문화원은 10월17일 김사 및 이사를 포함 일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5차(이)사회를 개최했다.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문화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나도여로’ 남한 最初 자생지 發見

수목원, 강원도 백두대간 고산지역 분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은 한반도의 북한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식물 나도여로(Zygadenus sibiricus A. Gray) 군락지가 강원도 백두대간 고산에서 발견됐다 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생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최남단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심도 있는 보전전략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도여로는 2006년 국립수목원에서 주관한 '한반도 산림생물 표본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사업 (사)동북아시아식물연구소(연구책임자 현진오 박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발견되었으며, 국립수목원측 전문가들에 의해 최종 확인됐다.

나도여로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시베리아지방에서 최초 발견되었으며, 만주, 몽골, 일본 등지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절멸위험 II등급으로 지정해 보



희귀식물 나도여로

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고산 풀밭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북한에서도 이 식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는 1936년 고정태현 박사가 함경북도 관모봉에서 채집한 표본 1장만이 성균관대학교 표본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 현재 보존해야할 희귀·보전식물 목록에조차 없는 종이다.

이번에 밝혀진 자생지는 북방

계식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적 분포의 최남단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식물지리학적으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또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생육지의 면적은 50㎡ 미만으로 매우 협소하고 개체수 또한 수십개체에 불과해 유전적인 취약성 및 생태적인 도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원예 등 자원식물로서의 가치로 인한 도체꾼들의 남획가 우려된다.

국립수목원은 국내 멸절 위기에 처한 본 식물에 대한 증식, 현지내 복원을 통한 보전대책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인근의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나도여로屬 식물들에 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도여로의 남한내 자생여부가 확인된 바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세계적 희귀성과 자원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본 종 및 자생지에 대한 적합한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0)

초대 국회의원 서정희(徐廷禧)

포천의 명문가 달서 서씨 문종의 최초의 국회의원이자 제헌의원이었다. 건국 초기에는 입법위원을 역임하였다.

남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고종 13년(1876년) 출생하였으며 포천에서 거주하였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피로군은 북으로 남치해 갔다. 1970년 부인이 타계하시자 의광장(衣冠葬) 입고 생전에 쓰였던 모자, 옷 등을 시신 대신 묻는 장례법으로 합장하였는데 남의 소식은 알 길이 없더니 애석하기 그지 없다.

호는 농천(農泉)이며 본관은 달성이다. 경이(慶李), 달서(達徐), 고리(高李), 아리(牙李)라

는 포천 명문가의 일족의 어른이다. 1905년 신민회(新民會) 사건으로 진도에 귀양살이를 하였는데 3년후, 석방되었다. 전남 광주에서 사회정화운동(금연운동,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전개로 유명하였으리라 1919년3월1일 3·1운동이 발발하자 3·1만세 운동을 전개하여 일제 대구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받고 복역하였다.(삼남지방의 만세운동) 남은 원래 농민운동가로 농민운동에 참가 주도하여 농촌총연맹위원장으로서 크게 활동하였다. 특히, 조각쟁의(小作爭議: 지주와 소작농민간의 분쟁, 소작인의 권익 보호 투쟁)에 적극 활동하였

다.(친일파 지주타도) 다시, 북풍회운동(北風會運動)에 참여하였다. 다시 제2차 공산당 사건으로 연무현의를 받아 신의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시다가 석방되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산 좋고 물 맑은 포천을 찾아와 고향을 삼고 달서 서씨 문중을 이어 후진양성에 힘쓰셨다.(계몽운동 문맹퇴치)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조국의 부름을 받아 민주 입법원에 선출되었다. 1948년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자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내외항 포천의 초대 의원이 되셨는데 바로 제헌 의원이다. 제헌의원 선거에는 총 7명이 입후보하였는